



# 나날이 어린이 신문

## 100원을 이렇게 중요한 일에 쓸 수 있다니 ■



"나 기부하러 왔어."

3월 25일 연세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시청에 찾아왔어요. "무엇을 도와드릴까요?" 시청 직원이 묻자 할아버지는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어요. 그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. 할아버지는 "산불 때문에 걱정이 되고, 피해를 본 이웃들이 안타까웠다"라며 "가만히 있을 수 없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기부를 하고 싶다"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. 시청 직원은 할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며, 기부한 돈을 산불 피해 지역에 꼭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어요.

경상북도(경북)에서 일어난 역사상 최악의 산불은 가까스로 꺾지만 너무나도 큰 피해가 남았어요. 집이 불에 타버려 돌아갈 수 없는 이재민만 3300여 명이나 된다고 해요. 이재민들은 먹는 것도 씻는 것도 불편한 곳에서 당분간 지내야 해요. 힘들지만 다 함께 힘을 합쳐 피해를 이겨내자고,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어요. 할아버지처럼 말이에요.

이웃이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 아픔에 공감해 주고, 나서서 도와주는 것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예요. 기부를 먼저 한 사람들이 '나 기부했다'라고 SNS나 주변에 자랑하면 따라서 기부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. 그렇게 퍼지고 퍼져 현재까지 무려 200만 명이 기부를 했다고 하니 정말 엄청나죠. 이렇게 모인 돈으로 산불에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고, 불 타 무너진 집을 다시 짓고, 나무를 심고, 다시 불이 나지 않게 대비를 할 수 있어요.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지 않는다면 어려운 일이에요.

기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요? 기부는 꼭 돈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. 100원만 있어도 기부를 할 수 있어요. 인터넷으로 손쉽게 말이에요. '100원으로 뭘 할 수 있어?'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, 많은 사람들이 모은다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어요.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말이에요.

\* 신문기사를 소리내어 읽어 보세요.

문해력 쏙 

오늘의 단어

**기부**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돈이나 물건을 댓가 없이 제공하는 것

**산불** 산이나 숲에서 일어나는 큰 불

**피해** 재산이나 생명등에 입은 손해

**이재민** 재해를 입은 사람

독해력 쏙 

내용을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.

사고력 쏙 

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 위로와 응원의 말을 적어보세요.